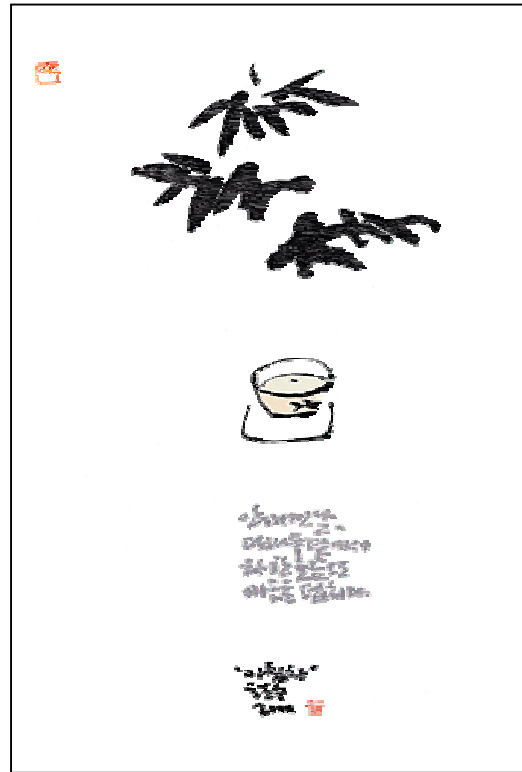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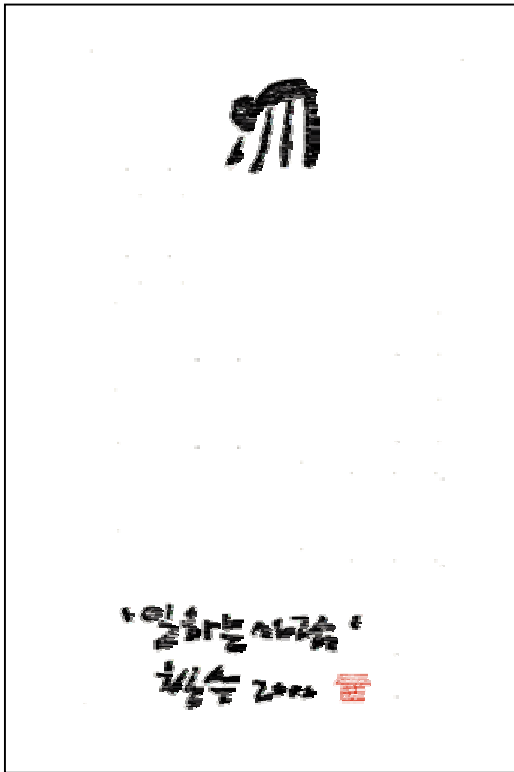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饑來喫飯 困來即眠)

땅바닥에서 들꽃 솟구쳐 오르자 매우(梅雨) 그쳤다. 봄이 깊은 것이다. 이즈음, 그는 무엇 하고 있을까. 분명 그의 칼끝 멈춘 곳에 몇 송이 꽃 피었다 졌을 것이고 겨우내 묵혀두었던 눈과 밭을 일구느라 여느 촌부와 다름없이 봄 햇살이 그의 얼굴에 거뭇한 꽃을 피웠을 것이다. 보지 못한 지 두어 달이나 되었지만 안 봐도 본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것은 십 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보아온 그의 일상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법이 없었던 탓이다. 봄이나 가을에 불쑥 찾아들면 눈이나 밭에서 바지 등등 건어올리고 농사일에 열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았다. 그러니 그이는 번지르르한 고급함이나 세련된 예술의 막연한 거품 대신 소박과 일상의 옷이 아무렇게나 척척 걸쳐져 있는 것이다. 시골 촌부 누구나 제 각각 잘하는 무엇 하나쯤은 지니고 있을 터, 짚신 잘 삼는 이웃 노인처럼 그이는 나무에 그림 새겨 종이에 옮겨 찍는 재주를 지니고 있을 뿐, 길 가다 만나는 여느 시골 촌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깍다거(喫茶去), 고불(古佛) 조주(趙州)가 내놓은 쓴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처럼 그이는 일상에 충실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그는 단지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 충실한 촌부일 따름이지 번듯한 예술가로 과장되거나 우아함으로 포장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미처 내가 예술적 인간이지 못해 그렇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나에게겐 반듯한 말투로 자로 잦 듯한 예술을 쓴살같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것보다는 일상에의 천착이 훨씬 쉽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饑來喫飯 困來即眠) 이름 부르면 대답하는, 더 이상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그대로의 평상심. 그건 이철수라는 칼잡이가 가진 가장 예리한 칼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그가 가진 수십 개 조각칼의 곧추선 날보다도 예리하고 깊다. 그래서 촌철살인의 선문답(禪問答)처럼 우리들에게로 다가오거나 분별심으로 가득 찬 우리네 마음을 쓴살같이 파고든다.

우리는 늘 일탈(日脫)을 꿈꾸고 그이는 늘 일상에 머물러 있기에 그와 우리는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싶다. 일탈의 탄력성에 길들여져 늘 떠나려는 꿈을 꾸는 자와 아예 꿈쩍 않고 곱게 머물러 있는 자의 차이. 그와 우리의 간극은 바로 그쯤일 것이다. 우리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것을 온갖 고난과 정처 없이 떠돌며 바람소리, 물소리 벗삼고 별을 쳐다보며 참선하는 두타행(頭陀行)이라고 본다면, 이철수의 그것은 단지 일상 속에서의 평상심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겪었지만 흘깃 무심결에 지나가고 말았던 바로 그곳에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이다.



다시, 조주는 ‘아시송뇨 착의끼반(屙屎送尿 着依喫飯)’이라 했다. 내가 구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소변 마려우면 그것을, 대변 마려우면 또 그것을 해결하고, 추우면 옷을 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는 바로 그 간단한 일상사 가운데 기를 쓰고 찾으려는 것이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미처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주가 ‘차나 한잔하라’고 한 것 또한 다르지 않다. 진리는 모두 일상 속에 있는 것이거늘. 결국 이철수와 우리 모두는 늘 같은 차를 마실 뿐이지만(茶飯事) 그는 그것이 차인 줄 아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차인 줄조차 모르고 마시고 있다는 차이이다. 그 탓에 무던하기 짝이 없는 사람살이의 일상도 그의 칼끝을 통하면 웃음 머금은 해학이 되는가 하면 촌철살인의 선문답과 같은 예술이 되는 것이지 싶다.

이지누 / 계간 「디새집」 편집인, 사진가